

데스크 시각



채희종
여론매체부장

얼마 전 평소 다니던 단골 주유소에 들렀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항상 밝은 얼굴로 맞아 주던 노인은 사라지고 대신 셀프기기(무인 자동화기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담배에 찌든 먼 목소리지만 따뜻하게 외치던 노인의 인사는 기계음이 대신했다. 차를 빼서 그대로 나왔다. 2년 동안 봐 왔던 얼굴이라, 일흔의 노인이 추운 날씨에 갈 만한 곳은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주유소들이 주유원을 자동화기기로 대체하긴 했지만, 급기야 올해 최저임금이 1060원(16.4%) 인상된 7530원이 되면서부터 셀프주유소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셀프주유소에 유감은 없다. 업주는 인건비를 아낀 만큼 기름 값을 내려 팔고, 운전자는

커피 한 잔 값 절약과 누군가의 일자리

그만큼 절약하는 구조이니 나무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같은 영업의 이점을 알면서도 나이든 노인을 고용하는 주유소들은 여전히 많다. 이런 주유소 중 출퇴근길을 고려해 세 곳을 골랐다. 기름이 바닥나고, 길을 돌아야 하는 한이 있어도 주유는 정한 곳에 서만 하고 있다. 사소하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주유소에 대한 내 방식의 동점이다.

셀프주유소 가지 않는 이유

주유원이 있는 주유소는 셀프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기름 값이 일반적으로 싼데서 이십 원 정도 비싸다. 운전자들이 셀프주유소로 물리는 원인이자. 하지만 간단히 계산해 보면 기름 값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과 한두 차례 업무용 운행을 매일 반복하는 직장인이 1주일에 60리터(약 8만 원)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리터당 20원이 싸더라도 1주일에 1200원, 한 달에 4800원을 아끼는 셈이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커피 한 잔 값이다. 한 달에 고작 커피 한 잔 값을 아꼈을 뿐인데, 그 한 잔이 또한 결과는 누군가의 해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커피 한 잔 값의 절약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라는 얼마든지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고용과 해고 사이에서 밤잠을 설쳤다. 상당수 아파트가 한 달에 가구당 수천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통해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촌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와 같이 매달 3000여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 대신 경비원 전원 해고를 선택한 곳도 더러 있어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온 나라가 말할 듯, 경제가 붕괴할 듯 떠드는 이들이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것이 정말 임금 인상 때문일까, 그렇다면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경영은 좋아질까?

우리나라 560만 명의 자영업자 중 가족 운영자는 400만 명이며,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60만 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0만 개의 자영업 일자리가 생기고, 8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듯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무분별한 창업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영 구조 탓이다.

오래 기간 대기업을 중소기업에 저가 납품을, 중소기업은 하청업체에 낮은 단가를, 자영업자는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

을 강요하는 경제 모델이 유지돼 왔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은 한국의 고도성장이 노동자의 저임금에 빚지고 있음이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눠 지고 가면 함께 간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취약 계층이다. 충분한 여가 생활은 아니더라도 기초 생계가 유지되는 수준은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저임금에 기댄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단계적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원정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불공정한 이익 분배, 과도한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사용료 등에 대한 조정과 같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나눠 지고 가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주유소만을 찾는 것도 다 그런 생각 때문이다.

/ chaeh@kwangju.co.kr

은편칼럼



고성희
시인

샌드라 스타인그래버는 자신의 암 투병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암의 관계를 탐구하고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들의 반란’이라는 책을 썼다. 저자는 인간은 먹고 마시고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또한 먹고 마시고 숨 쉬지 않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끔찍한 일이다. 인간들은 자연을 방기하고 자신들만을 위해 놀람도 탐욕스러워졌다. 그 결과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농업 지역에서도 잔류 농약이 발견된다고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미 극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뿐만 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니라 심지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TV의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채널만 돌리면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먹고 마시는 것들, 같은 양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야 시비 걸 일이 못된다고 하지만 덩치가 커다란, 살찐 사람들이 둘러앉아 보통 사람들의 몇 배나 되는 양을 먹어치우는 걸 보면 절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어렸을 적 고향 섬 마을에서 아버지가 잠깐 방앗간을 할 때였다. 아버지가 빨아놓은 쌀을 한 주머니씩 훑쳐 먹곤 했는데, 숨을 데라고는 돌담 밑이거나 참초처럼 파인 언덕 아래뿐이어서, 그곳을 익숙하게 아는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금방 들통 났다. 하나 둘 나타난 아이들은 자기들에게도 한 줍씩 달라며 보채다가 이윽고 내 주머니를 목표로 한껏배에 담비곤 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60년대에 쌀은 훌륭한 먹을거리였다. 햇반이 따뜻한 봄날 먹던, 쌀가루와 연한 썩반을 바꾸러 썩 ‘썩바무리’를 생각하니 군침이 돈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함에서 멀쭉 줄 앓았던 그때 삶의 방식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인간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와 균형이 아닐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는 의무가 따른다. 이는 이제 어려운 법전에만 있지 않은 일반의 상식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며 누리는 인간의 번영은, 사실은 다른 생물의 몫에서 퍼 온 것이니 마땅히 줄여야 한다. 먹는 걸로 만지만 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끝없는 만족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이미 우리 삶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지구가 여섯 번째 대멸종 시기에 나섰다라고 말한다. 이번 멸종은 인간 활동, 즉 인간의 증가를 말한다의 점에서 운석 충돌 등이 이유였던 앞선 다섯 번의 멸종과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시켰으며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그 욕심을 늘렸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구의 심장이 언제까지 뿔 수 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언제나 진리다. 넘치는 건 분명 부족함만 못하다.

먹고 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먹는 일이 즐겁기보다는 귀찮은 사람도 있다. 우리 주변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맛보다 먹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산다. 법

정스님은 먹는 것을 두고 먹지 않으면 병들어 쓰러질 테니 그것을 면하기 위해 담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알치의 부엌에 ‘먹이는 간명하게’ 라는 ‘훈(訓)’을 써 붙이고 적어도 먹는 일에만 번거롭지 말라고 했다. 어쩌다 거짓수가 많은 식탁을 대하면 생각이 흐트러져 오히려 맛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 먹이랴니... 스님은 친한 친구들이 간단명료한 ‘먹이’를 보고 건강을 염려하지만, 건강이란 반드시 먹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난 두 분(승)마저도 집착이라며,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무소유’의 스님으로서 너무나 단명한 말씀일 것이다. “입 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배 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고 가르친 스님의 절제를 우리 모두 책상머리에 써 붙여야 하지 않을까.

부귀를 저축하지 않고 희망을 저축하는 습관이야말로 인류의 시간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부터라도 부디 먹고 마시는, 표파적이고 감각적인 프로그램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는 올림픽의 열기와 자식들을 만나는 설 명절을 보내면서도 넘치는 음식 때문인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기고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블과 반세기 전, 전 세계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10억 명에 불과하였다. 유엔 해비타트는 2016년 보고서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0억 명으로 추산하였다. 또 2030년 세계 도시 인구의 60%인 5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고, 인구 1000만 명 이상 메가시티가 41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도시를 그저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일하는 공간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위기의 장소가 되고 있다. 과거의 도시 문제는 일부 대도시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계속 모이기 때문에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주택, 도시, 위생, 교통, 공해, 실업, 안전 등에 관한 도시 문제가 점차 전 지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등장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

문구가 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마치 민간단체의 구호나 캠페인 문구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도시 문제를 고민하는 국제 사회가 함께 내세우고 있다. 환경, 도시계획, 복지, 아동 청소년 심지어 문화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이야기한다.

2월 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유엔 해비타트가 주관하는 제9회 세계 도시 채택한 UN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에 대한 이행 상황을 상호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필자는 이 포럼에 도시 계획과 주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다른 도시와 지역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이 논의가 언뜻 듣기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판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야기로 가득하였다.

모든 도시가 유사하게 겪고 있는 문제로서 열악한 교통 인프라, 빈약한 공공서비스, 빈곤, 부의 양극화, 낮은 고용률과 같은 도시 문제가 나열되었고, 해결

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포럼의 주요 키워드는 ‘포용’과 ‘회복’, 그리고 ‘성평등’이었다.

사실 이 주제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도시를 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딱히 포럼의 주제를 모두가 함의하여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지만, 수백개의 회의가 바로 이 주제로 이뤄졌다. 각 도시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자신들의 고유한 지역적 특색을 가미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막식 기초 연설은 3명의 여성이 했다. 유력한 정치인은 아니었고, 모두가 하나같이 도시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천 운동을 하는 정점에 선 인물들이었다. 혹자는 보여주기가 식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세계가 여성을 바라보는 하나의 모습이고, 그만큼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모습이 특이해서 바로 SNS에 소개했더니, 지인이 바로 이렇게 답을 주었다. “도시의 획일성과 폭력성을 상쇄하고 유연성과 회복력을 담보할, 여성성과 모성으로의 여성 리더들이라 생각되고 개개가 깃덕여지네”라고 말이다.

이 포럼의 각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도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나 국제연대 활동을 단순한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원조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다. 도시가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생활의 장이 되면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

의 관점에서 도시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사는 광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너무도 쉽게 4차 산업 혁명이냐 스마트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과학 기술로 가득찬 도시를 그린다. 미래 도시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이 변화에 가까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과학 기술로 가득찬 삭막한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과학 기술을 통한 편리한 삶을 내세우는 우리와는 달리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를 이야기 한다. 심지어 스마트 도시를 이야기할 때, 정보 기술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말한다.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우리는 나만, 또는 내 가족만 잘 적응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는 나 또는 내 가족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잘 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나 우리 광주의 존재의 미는 사라진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합의는 우리 광주에도 큰 반향을 주는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변화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社說

국방위 통과한 5·18특별법 이번엔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두 달여간의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와 강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국회 처리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나온 5·18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같은 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이다. 이들 법안은 37일이 남도록 의욕으로 남아 있는 발표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및 암매장, 헬기 사격 등 5·18 강제 진압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 처리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김동철·최

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사 위와 사무처 외에도 광주 시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삭제됐다. 진상조사위 조사위원 규모도 15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이밖에 강제 조사권이 미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상조사위의 동행 명령에 불응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벌 규정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결된 것이다. 반면에 조사위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고 특별 검사 임명 요청도 가능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방위를 넘어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미흡한 내용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되 반드시 이달 내 처리해 5·18 38주년을 맞는 올해는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존치·개발 논란 속 광주역 활성화 해법 없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다. 광주역 주변 활성화 대책도 그중 하나다. 고수철을 송정역에 빼앗기면서 광주역 주변은 물론 구도심 쇠락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역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광주송정역과 연계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주역에 문화·청년·첨단산업·행정 등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광주송정역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으로 일원화된 이후 광주역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각각 20편만 운행되면서 하루 평균 1100여 명(수말 1500여 명)이 오가는 보통 역으로 전락했다.

이후 광주역의 기능 회복을 위해 2016년 말에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를 개통했으나, 별 성과 없이 이

후 역 기능의 폐지와 존치를 둘러싼 논쟁만 반복돼 왔다.

광주시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해다. 국비와 시비 최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시의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안)’에 따르면 광주역 유휴 부지는 ‘아시아 신비즈니스의 출발지, 기적도시 광주역’을 비전으로 삼아 4차 산업 전진지기와 호남권 신경제중심지로 조성된다. 240만3000㎡의 부지에는 푸른길 연계 하이테크파크, 아이디어 공작소, 드론광장, 소풍센터, 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배치된다.

시는 코레일과 광주역 유휴부지에 대해 동시 출자해 1단계를 개발하고, 현재 비어 있는 광주 역사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과 문화예술 등의 공간으로 복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됐든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에 광주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어필해 광주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36년 창단돼 AFL(미국 풋볼 리그·American Football League)의 역사 함께한 미국 미식축구팀인 세인트루이스 램즈팀(현재 로스앤젤레스 램즈)은 1990년대 역사상 최악의 승률을 기록한 팀 중 하나였다. 60여 명의 선수 중 9명 외에 나머지 선수는 경합이 부족하거나 기량이 떨어지는 신인이었고, 이 때문에 구단주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경기나 제대로 하겠냐며 우려했다.	서 4년간 흘린 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올림픽 깜짝 스타로 떠오른 컬링 여자 국가대표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들은 스포츠에서 꼭 필요한 팀워크를 100% 이상 발휘하며 세계 강호들을 잇달아 격파함으로써 4강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여자 컬링팀의 팀워크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모두 팀씨 성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 ‘팀 킴’(Team Kim)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팀을 맡은 딕 베메일(Dick Vermeil) 감독은 3년 뒤, 99-2000년 슈퍼볼 우승을 이끌며 내셔널 풋볼의 주인공이 됐다. 베메일 감독은 우승 후 기자회견을 통해 “팀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며, 나머지 75%는 팀워크입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개인의 기량보다는 팀워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는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 간 팀워크를 강조하는 유명한 명언으로 지금까지 회자하고 있다.	반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에 나선 한국 대표팀의 ‘팀워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팀추월 경기는 맨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이 측정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아닌 ‘원팀’이다. 그런데 한국은 ‘원팀’으로 달리지 않았다. 뒤처진 선수들을 밀어 주며 경기를 진행하는 다른 나라 대표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우리는 나만, 또는 내 가족만 잘 적응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사회는 나 또는 내 가족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잘 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나 우리 광주의 존재의 미는 사라진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	동계 올림픽 폐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정한 ‘팀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두가 남은 경기에서 멋진 ‘원팀’이 돼 우승의미를 거뒀으면 한다. /최원일 정치부부장 cki@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